

# 「崔尉子傳」·「蘇知縣羅衫再合」과 「朱鳳傳」의 辨別性

曹昊(허페이대)<sup>1)</sup>

## 〈 목 차 〉

- |                    |                    |
|--------------------|--------------------|
| 1. 序言              | 4. 朱鳳傳의 民族의 特徵과 意義 |
| 2. 登場人物 類型과 役割의 差異 | 5. 結言              |
| 3. 敘事的 差異와 그 意味    |                    |

## 1. 序言

唐나라 때 皇甫씨의 「崔尉子傳」<sup>2)</sup>이나 明나라 때 馮夢龍의 「蘇知縣羅衫再合」<sup>3)</sup>과 朝鮮後期 작가 미상의 「朱鳳傳」<sup>4)</sup>은 시기와 나라를 달리하여 나타난 작품이지만 이야기의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sup>5)</sup> 그러나 후대의 작품일수록

1) (中國 安徽省 合肥市) 合肥學院 環巢湖文化與經濟社會發展研究中心 研究員.

2) 李昉, 『太平廣記』卷第一百二十一 報應二十, 臺灣古新書局, 1981.

3) 馮夢龍, 『警世通言』, 中國 長春出版社, 1994.

4) 민영대 소장의 한글필사본 「유봉전」(1932년).

5) 민영대, 「유봉전 研究」, 『韓南語文學』 30, 韓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2003.

\_\_\_\_\_, 「유봉전 研究」, 『韓國言語文學』 51, 韓國言語文學會, 2003.

\_\_\_\_\_, 「月峯記 研究」, 『語文學』 87, 韓國語文學會, 2005.

\_\_\_\_\_, 「朱鳳傳과 中國作品의 影響關係(1)」, 『韓南語文學』 30, 韓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등장인물이 다양해졌고, 이들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건 전개가 또한 복잡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시대 변화나 작자의 서사화 능력에 따른 등장인물의 유형과 역할, 사건 기술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지만, 두 나라 작품에서 가장 큰 차이는 중국 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민간신앙 요소가 한국 작품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朱鳳傳』 계열의 작품 『朱如得傳』·『朱海仙傳』이 중국 작품의 영향을 입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점이 두 나라 작품의 변별성이며, 한국 민족의 정서를 보여주는 예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2. 登場人物 類型과 役割의 差異

등장인물의 유형과 역할에서, 두 나라 작품은 차이가 많다. 『崔尉子傳』에는 최씨와 부인 왕씨, 최씨의 유복자, 어머니 노씨, 노복, 船主 손씨가 등장인물의 전부이다. 최씨가 급제한 후, 아내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임지로 가다가 수적에게 살해당함으로써 그의 역할이 끝난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임지로 향한 것은 관리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결과, 아내와 재물 때문에 그는 부임도 못하고 객사한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깊은 한을 남겨준다. 왕씨는 불가항력이었겠지만 원수와 함께 살면서 유복자를 낳아 기른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며 뒷날을 위하여 몰래 글을 가르친다. 재물과 색에 눈이 뒤집힌, 부정적인 손씨의 등장으로 주인공 집안이 풍비박산되며 이야기는 점차 복잡하게 전개된다. 어머니 노씨는 뒷날 유복자(손자임)가 과거를 보러 상경할 때 우연히 만나 그에게 옛날 아들에게 입히려 했던 옷을 선물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 유복자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작가는 뒷날 가족의 만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면, 일찍이 황성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삼을 받았던 유복자로서는 당연히 어머니와 찾아가 만나야했지만 작가는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

2006.

\_\_\_\_\_, 『朱鳳傳과 中國作品의 影響關係(2)』, 『韓國言語文學』 57, 韓國言語文學會, 2006.

않았다. 그보다는 악행을 저질렀던 손씨의 마지막이 중요했고, 이를 끝까지 비밀로 했던 왕씨의 잘못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蘇知縣羅衫再合』에는 등장인물이 다양하다. 소운과 동생 소우, 소운의 어머니와 아내, 아내를 도와주는 주파와 자호암의 여승, 주인공을 구출하는 도공과 사공, 집사 소승 부부, 수적 서능 일당, 서능의 동생 서용, 소운의 아들 소태(본래 이름은 서계조), 주인공의 아들을 양육해 주는 요대 부부, 소태의 아내 왕씨와 두 아들이 있다. 이외에 소우가 객사하자 장례를 치러주는 난계의 고 지현, 난계현의 관노들, 소운과 같은 해에 급제했던 조강 여사, 서능에게 선박을 세운 왕 상서, 소운의 아내 대신 소장을 써준 부부, 소태에게 원정을 바친 정씨를 죽이도록 권유했던 周 兵備 등이 있다. 최위자 이야기와 구조는 흡사하면서도 사건은 복잡하다. 따라 등장인물 유형도 다양해졌으며, 그들의 역할도 확대되었음을 본다.

소운의 어머니는 소운의 행방을 확인하고자 소우를 남계로 보낸다. 소우는 형이 난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고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슬퍼하다가 객사한다. 간단한 소우의 역할이다. 그러나 동생이 형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객사한다는 것은 독자들의 안타까움을 배가하기에 충분한 사건 조직이며, 한편 이들 형제애를 볼 수 있는, 형제사이의 우애뿐만이 아니고 가족사이의 유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소우가 난계에 왔을 때, 그를 도와준 고 지현의 역할도 특이하다. 소우가 형의 안위를 알아보려다 비명횡사하자 그의 장례를 치러준다. 그의 종이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백성을 사랑하는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이다. 소우가 난계의 관아에서 만나는 관노들의 횡포를 본다. 형이 지현으로 있는 줄 알고 찾아왔음을 알렸지만, 관노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내쫓는다. 잠시이지만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담당, 독자들에게 일말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소승 부부가 있다. 가사를 전담하는 집사 역할을 하기 위해 소운 부부를 모시고 임지로 향하다가 수적에게 살해당한다.

적굴에 있던 정씨는 도적의 동생 서용의 도움으로 주파와 도망한다. 서능이 정씨를 주파에게 맡겼을 때, 주파가 정씨에게 서능과 결혼할 것을 회유하지만 정씨의 뜻이 완강함을 알고 함께 도주한다. 주파가 병 때문에 함께 도망

할 수 없자 정씨만이라도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義井이란 우물에 투신한다. 주파의 자결은 정씨를 안전하게 도피시키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혈혈 단신이 된 의지할 곳 없는 정씨의 신세를 더욱 안타깝게 이끌기에도 효과적이다.

『崔尉子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인공 아들의 부인으로 왕 상서의 딸이 등장한다. 왕씨의 역할은 며느리로서만이 아닌 두 아들을 낳아 작은아들을 시아버지 때문에 난계에서 객사했던 작은아버지 댁에 양자로 보내 그의 가계를 잇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적으로 徐能 외에 부하들도 여럿이 등장한다. 조직적인 도적떼이다. 이들은 『崔尉子傳』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집안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준다. 그 중 수적의 동생 서용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독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이야기의 흥미를 재고한다.

자호암의 여승이 있다. 처음 정씨가 만삭으로 암자에 왔을 때 곧 해산할 것을 알고는 여승들만이 있는 절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그러다가 정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암자 뒤에 있는 별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도현 자호암으로 정씨를 데리고 피신한다.

소운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도공이 있다. 그는 강물에 빠졌던 소운을 구해주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도둑 중 아이를 길러주는 요대 부부도 있다. 그들은 아이의 비단옷과 금비녀를 끝까지 보관한다. 이것은 아이가 뒷날 부모를 만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소운의 진정서를 받아 감찰어사에게 전해주는 조강 어사도 있다. 정씨가 의진에 왔다가 시주를 부탁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부가 있다. 이들이 정씨의 사정을 듣고 신임 어사에게 원정을 바치도록 권한다. 정씨가 글을 몰라 원정을 쓸 수 없다 하자 그 남편이 정씨를 대신해서 소장을 써준다.

특히 정씨가 원정을 바칠 때 서계조와 함께 있던 주 병비의 등장은 이채롭다. 주 병비와 같이 있다가 정씨가 올린 소장을 본 계조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자문하자 주 병비는 서슴지 않고 ‘내일 소장을 바친 부인을 잡아다 심문한 후 때려죽여 후환을 없이하면 그뿐이다’라 대답한다. 이 때문에 계조는 갈등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독자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불러일

오키는 긴장감을 유발한다. 아마 이는 작가가 살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심분 발휘한 것이 아닐까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蘇知縣羅衫再合」에는 「崔尉子傳」보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복잡하게, 한편으로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야기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또한 儒敎思想을 나타내기 위해<sup>6)</sup> 등장인물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에서 복잡하게 발전했음도 볼 수 있다.

「朱鳳傳」도 「蘇知縣羅衫再合」만큼 다양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복잡하게,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전개된다. 이들의 역할, 또한 다양하다.

주인공은 주봉이다. 중국 작품에는 볼 수 없던 주인공의 아버지 주여득이 등장하며 간신들의 참소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리하여 남아있는 가족이 곤경에 빠지게끔 이야기를 전개하며, 주인공 3대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주인공 어머니 왕씨, 그의 아내 이씨가 있다. 주인공을 사경에서 구해주는 일광 도사가 있으며 이씨 부인을 도와주는 시비 옥염과 칠보암의 팔관 대사도 있다. 수적은 장취경이다. 주인공의 아들 장해선(뒷날 주해선으로 고침), 이를 양육해주었던 이씨 부인(주인공의 처형이며 장해선의 이모)이 있다. 이외에 황제, 주봉을 돕는 이도원이 등장한다. 주여득이 곤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었던 왕 상서, 주봉의 장인 이 승상, 주여득을 모함했던 최 상서, 주봉을 모함했던 유경안, 이 승상의 큰사위이며 주봉의 동서인 최 한림과 그의 아내 이씨, 일찍이 주인공의 아들을 서로 데려가려던 동네아낙네들, 장취경에게 잡혀있던 열두 부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거북, 옥황상제와 이목, 선관, 용왕 등이 등장하여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국 작품에서는 볼 수 없던 초인적인 옥황상제, 용왕 등이 등장하여 이야기 전개에 허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

6) 최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임지로 보낸 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운의 어머니는 동생을 임지로 보내 형의 안위를 확인한다. 동생을 임지로 보낸다는 이야기조직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기도, 가족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왕씨가 원수와 함께 산다는 기술에서 皇甫氏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반면, 馮夢龍은 정씨가 도적의 소굴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다는 기술을 통하여 여성의 정절을 중시했던 작가의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다.

〈中國作品과 韓國作品의 登場人物 比較〉

구분	崔尉子傳	蘇知縣羅衫再合	朱鳳傳
주인공	崔尉子	蘇雲	朱鳳
주인공의 아버지	·	·	주여득
주인공의 동생	·	蘇雨	·
주인공의 부인	王氏	鄭氏	이씨(이승상의 딸)
주인공 구출자	·	陶公과 沙工	일광도사
부인의 조력자	·	朱婆, 慈湖庵 女僧	옥염, 칠보암 팔관대사
주인공의 집사	·	蘇勝 夫婦	·
주인공의 노모	盧氏	張氏	왕씨(왕상서의 딸)
주인공의 아들	遺腹子	徐繼祖→蘇泰	장해선 → 주해선
유복자의 아내	·	王氏	·
수적	孫氏	徐能	장취경
수적의 부하	·	趙三, 翁鼻涕. 등	·
수적의 동생	·	徐用	·
유복자 아들	·	두 아들	9남 8녀
유복자 양육	어머니 王氏	姚大 夫婦	이씨 부인(주봉의 처형)
기타	·	소우가 객사하자 장례를 치러주는 蘭溪의 高 知縣, 蘭溪縣의 官奴들, 소운이 올린 고장을 소태에게 전해주는 操江 御使, 서능에게 배를 세내준 王 尙書, 소태에게 정씨를 죽이도록 권유하는 周 兵備, 정씨를 대신해서 소장을 써준 동네사람	황제, 이도원(주봉을 도움), 최상서(주여득을 모해), 왕 상서(주여득의 장인), 이 승상(주봉의 장인), 최 한림(이 승상의 큰사위), 유경안(주봉을 모함), 백관, 옥황상제, 이목, 선관, 용왕, 장취경에게 잡혀있던 열두 부인, 유복자를 데려가려는 동네아낙들, 거북

### 3. 敘事的 差異와 그 意味

『太平廣記』(121卷)의 『崔尉子傳』<sup>7)</sup>은 등장인물이 현실적이며, 지리적 배경도 사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 이야기에 우연성이나 황당무계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7) 李昉, 앞의 책. 원문의 마지막에 ‘出原化記’라 하였는데, 『原化記』는 通志·藝文略의 註에서 唐代 傳奇小說集으로 그 안에 실려 있는 단편의 내용을 미루어서 會昌·咸通 이후에 皇甫氏(이름은 미상)가 찬술한 것으로 밝혀졌다(李時人 編校, 何滿子 審定, 『全唐五代小說』 第四冊, 卷77,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98, 2137쪽. / 全寅初, 『唐代小說研究』, 延世大學校 出版社, 2000, 335쪽에서 재인용).

보듯 작가는 뒷날 이들 가족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일찍이 황성으로 가다가 우연히 할머니 댁에 머물며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결정적 단서인 羅衫까지 선물로 받았던 유복자로서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가 그 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야 마땅할 텐데도 작가는 이들의 후일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악행을 저질렀던 손씨의 최후가 중요했고, 이를 끝까지 숨겼던 왕씨의 잘못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참고로, 황보씨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 ‘原化記는 대체로 採藥民이나 張老와 같은 神仙·道家의 기이한 체험담을 주로 소재로 삼았다. 전체적으로 역시 志怪故事로서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라 여겨진다.’라 하여 『原化記』의 작품들이 대개 지괴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최위자 이야기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지괴와는 거리가 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다.<sup>8)</sup>

明代 馮夢龍의 『警世通言』 소재 「蘇知縣羅衫再合」의 이야기 기본 구조는 「崔尉子傳」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등장인물이 많아졌고, 사건이 복잡해졌다. 주인공이 원수를 갚고, 산지사방으로 이산했던 가족이 해후하여 일가가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다는 점에서 미완으로 끝냈던 최위자 이야기보다는 크게 발전된 모습이다. 이는 후대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또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비현실적인, 황당한 기술은 거의 없다. 사실성을 가진 이야기이다. 다만, 계조가 상경하다가 우연히 장씨 집에 유숙한다든지, 소운이 물에 빠져 정처 없이 떠내려갈 때 휘주의 도공이 구해준다든지, 신임 어사에게 원정을 바치기 위해 오던 중 열제묘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讖言을 듣는 꿈을 꾸다든지 하는 조금은 우연한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韓國作品 「朱鳳傳」<sup>9)</sup>의 이야기 기본 구조는 앞의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작품 중 가장 늦게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인물이 다양해졌으며, 이들이 벌이는 사건과 역할 또한 확산되었음을 본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 민

8) 全寅初, 위의 책, 340쪽 참조.

9) 민영대 소장 한글필사본 「朱鳳傳」.

족이 지녀왔던 전통적인 민간신앙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 나라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상, 일찍부터 문화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문학, 종교, 사상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며, 두 나라 작품 사이에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드러남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서사적 측면에서 양국 작품의 유사점은 첫째, 주인공이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며, 둘째, 주인공이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고 임지로 떠나면서 어머니와 이별하고, 임지로 향하던 중 수적에게 화를 입으며, 셋째, 뒷날 주인공의 노모가 아들을 닮은 손자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선물을 전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원수를 갚기도, 가족들이 반갑게 해후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두 나라 작품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작가가 살아온 배경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어쩌면 이런 점이 한국 민족의 정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 3.1. 時代・地理的 背景設定과 主人公 登場

『崔尉子傳』의 경우, 시대 배경은 당나라 천보 연간으로, 지리적 배경은 형양으로 설정하였으며, 거기에서 최씨가 어머니 노씨 부인을 모시고 산다. 『蘇知縣羅衫再會』은 영락 연간을 시대 배경으로, 탁주를 지리적 배경으로 설정하였으며 그곳에서 소운, 소우 형제가 어머니 장씨, 소운의 아내 정씨와 함께 산다. 작품의 진행과 함께 소운의 아들 계조(소태)와 며느리 왕씨, 소태의 두 아들, 소송 부부, 집안의 비복들이 등장한다. 『朱鳳傳』은 시대 배경을 당 태종 즉위 초로, 지리적 배경을 황성 남천문 밖으로 설정하였고, 이곳에 살던 주여득이 조실부모한 후 왕 상서의 도움으로 그의 사위가 되고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일품에 오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중국 작품에 설정된 시대・지리적 배경은 사실적인데, 한국 작품에 설정된 시대 배경은 막연하며 지리적 배경도 사실성과는 무관하다.

최위자 이야기에서 최씨는 등장하자마자 도적에게 피살당하고 그의 아내와 유복자가 중심인물이다. 소운의 이야기에서는 소운 부부와 부자 - 소운・

소태 - 중심으로 확대된다. 그러다가 주봉의 이야기에 이르면 주봉의 三代 - 주여득 부부 · 주봉 부부 · 주해선 - 이야기로 크게 확대 · 변화되었으며, 가족 관계도 더 복잡하다. 특히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주여득이 자결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에게 운명적으로 시련이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인공 주봉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간신들의 참소로 자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운명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그 역할에 큰 차이가 드러난다.

### 3.2. 主人公의 벼슬과 赴任

최위자는 어려서 급제하여<sup>10)</sup> 길주의 대화 현위(「崔尉子傳」)로, 24세에 급제한 소운은 금화부 난계현 대윤(「蘇知縣羅衫再合」)으로 부임한다. 현위나 대윤은 미관말직이다. 처음 벼슬이기 때문에 높을 수 없다. 그런데 주봉은 15세에 장원급제, 예부상서와 한림학사라는 높은 벼슬로 해평 도사로 부임한다(「朱鳳傳」). 중국 소설보다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임지로 향하는 것도 다르다. 중국 작품은 황제의 명에 따른 것이지만, 「朱鳳傳」의 주인공은 정적들의 모함을 입고 변방으로 쫓겨 간다.<sup>11)</sup> 주인공을 신임했던 황제도 간신의 참언을 따르도록 이야기를 전개하여 주인공에게 커다란 역경이 이어질 것임을 예시해 준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조선 시대 끊임없었던 당파의 갈등을 은연중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도라 본다.

중국 작품에선 주인공의 벼슬과 임지가 사실적인데, 한국 작품에선 벼슬도 과장되었고 지역도 현실성이 결여된 곳으로 설정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10) 임지로 떠나기 바로 전에 결혼한다는 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로 나갈 때 아직은 어린 나이였음을 알 수 있다.

11) 이런 곳이었기에 작품 서두에 주봉의 아버지가 해평도사의 명을 받고 스스로 자결하였다고 묘사하였으며, 이점은 작품의 후반부 기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봉의 아내가 장취경에게 사로잡혀 적굴에 갇을 때 전에 잡혀왔던 열두 부인들이 있다고 했던 것에서 전부터 수많은 도사들이 정적들의 모함을 입고 해평도사로 부임하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3. 婦人들의 處世와 同伴者의 죽음

수적에게 남편을 잃은 후, 부인들의 처세가 각기 다르다. 『崔尉子傳』에서는 부인이 도적 손씨와 살면서 유복자를 낳아 기른다. 강압적인 손씨의 태도 때문이었겠지만 여인의 삶에 대한 개방적인 생각도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본다. 부인이 남편을 죽인 원수와 같이 산다는 것은 오늘날 시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키거나, 아니면 적굴을 탈출해야 맞는데 도적과의 삶을 영위한다. 이 점은 어쩌면 唐나라 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蘇知縣羅衫再合』의 소운의 아내 정씨는 서용(수적 서능의 동생)의 도움으로 주파와 적굴에서 도망친다. 이에 비해 『朱鳳傳』에서 주봉의 아내는 시비 옥염의 기지로 적굴에서 빠져나온다. 부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옥염이 스스로 투신하면서까지 주인을 살린다. 충복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행위 덕분에 정씨는 무사히 도망한다.

최위자 이야기보다 후대의 두 이야기는 최씨의 아내가 수적과 살면서 유복자를 낳아 기른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주인공이 적굴에서 도망하는 과정도 차이가 있다. 만약인 정씨는 서용의 도움을 얻어 주파와 같이 서능의 소굴에서 벗어난다. 주파가 더 걸을 수 없게 되자 정씨를 먼저 도망가게 한 후 자신은 우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정씨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씨는 시비와 적굴을 탈출한다. 도중에 옥염이 장취경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자결한다. 옥염은 주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충복이다. 장취경이 추격해오자 섬기던 주인이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부인이 투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를 꾸짖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더 이상 이씨를 추격할 수 없게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해소한다.

적의 소굴에서 탈출할 때 주인공을 도와주는 주파와 옥염의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주파와 정씨는 서용의 도움으로 탈출하지만 옥염은 스스로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이씨와 적굴을 빠져나온다. 보다 새로운, 적극성을 띤 행동이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서 옥염이 환생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주파는 자신의 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결한 것으로 당위성이 없다. 이에 비해 옥염은 주인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당위

성이 있다.

### 3.4. 百姓을 향한 官吏들의 態度

#### 3.4.1. 肯定的 官吏의 모습

중국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임지로 향한다. 이유는 명백하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최위자가 화를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물 때문인 것으로 보아 그가 임지로 향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음을 알 수 있다.

「蘇知縣羅衫再合」에서 소운의 태도에 이는 잘 나타난다.

임지로 떠날 즈음에 아내인 정씨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부임하는 것이니 반드시 좋은 관리가 되기로 결심했소. 이번에 임지에 가더라도 그곳의 물은 한 잔도 마시지 않을 작정이오. 우리 재산 가운데 3/10을 어머니가 살아가도록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지고 임지로 갈 작정입니다.”<sup>12)</sup>

소운이 관리로 갈 때 어떤 태도를 가졌던가를 본다. 그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잘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임지로 향한 건전한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주봉은 가난한 집안이기도 했고, 또 제대로 된 벼슬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정적들의 모함 때문에 변방으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고 갈 재물이 없었던 것으로 작품에 그리고 있다.

#### 3.4.2. 不當한 官吏의 모습

「崔尉子傳」에서는, 관에서 손씨를 처형하고 난 후 잘못을 숨겼던 왕씨에게 도 중형을 내리려 했지만 유복자의 간청으로 용서한다는 묘사에서 어느 정도

12) 馮夢龍, 앞의 책, 蘇雲對夫人鄭氏說道 “我早登科甲 初任牧民 立心願爲好官 此去止飲蘭溪一杯水 所有家財 盡數收拾 將十分之三留爲母親供膳 其余帶去任所使用”.

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하는 부정적 관리의 태도를 본다.

『蘇知縣羅衫再合』의 周兵備는 정씨 부인이 원정을 바치자 서계조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자문을 구할 때, “부인을 잡아다 심문한 후 때려 죽여 후환을 없이하면 그뿐이다”라고 대답한다. 잠시이지만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한다. 관리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가 살던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한, 모순된 시대 분위기를 심분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본다.

『朱鳳傳』에서는 주여득을 모해했던 최 상서와 신하들, 또 주봉을 포함하는 대신들이 등장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를 제거해야만 했던 정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여득과 주봉이 다 사경에 빠지거나 술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뒷날 자신들을 모해했던 조정 대신들을 용서하면서 이야기의 대단원을 맺고 있음이 중국 작품들과는 판이하다.

### 3.5. 버려진 子息의 養育

『崔尉子傳』의 경우, 최씨의 유복자를 어머니인 왕씨 부인이 수적과 함께 살면서 양육한다.

『蘇知縣羅衫再合』에서는 정씨 부인이 암자에 의탁하여 아들을 출산한다. 여승들만 있는 절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게 되자 아들을 길가에 버리고, 이를 서능이 데려와 요대 부부에게 맡겨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 제3자에게 맡겨 기른다.

그러나 『朱鳳傳』에서는 이모였던 이씨 부인이 양육한다. 혈육의 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게끔 이야기를 조직하였다. 오래 전 최 한림이 아내 이씨 부인(버려진 아이의 이모)을 데리고 해평 도사로 부임하는 길에 장취경에게 화를 입고, 이씨 부인만 잡혀와 이전에 화를 입고 도적의 소굴에서 살던 다른 부인들과 함께 모두 열두 명(이전에 해평으로 부임하다가 화를 입었던 도사들의 아내)이 적굴에서 세월을 보내던 중 이때 마침 장취경이 이씨 부인에게 데려온 아이의 양육을 부탁한다.

최위자 이야기에서는 왕씨가 수적과 함께 살며 유복자를 낳아 기른다는 후대의 작품과는 다르게 전개하였는데, 후대의 두 작품에서도 여주인공이 암자

에 의지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蘇知縣羅衫再合」에서 정씨가 만삭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헤맨다는 서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에 비해 「朱鳳傳」에서 이씨는 임신한 지 석 달 만이라 하여 보다 합리적이다. 또 해선을 우물가에 버렸을 때, 마을아낙네들이 서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다가 도적에게 빼앗긴다는 서술도 색다르다. 한편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으나 뒷날을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문학적 장치임이 분명하다. 장취경은 이 아이를 이씨에게 맡기는데, 이씨는 이전에 해평 도사로 부임하다가 피습 당했던 최 한림의 아내이며 왕 상서의 딸이고, 주봉의 아내 이씨의 언니이다. 곧 주봉의 처형이다. 이씨는 아이의 옷 모양에서 눈에 익은 바느질솜씨를 보고 동생의 아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蘇知縣羅衫再合」에서 계조를 키웠던 요대 부부가 아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임에 비해 해선은 곧 이모의 손에서 혈육의 정을 느끼면서 성장한다는 차이가 있다.<sup>13)</sup>

### 3.6. 離散家族들의 邂逅와 後日譚

「崔尉子傳」에서는 유복자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작가는 남은 가족들의 해후에는 관심이 없었다. 「蘇知縣羅衫再合」은 가족들이 무사히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감했다. 「朱鳳傳」의 경우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죽었던 옥염까지 환생, 반갑게 만난다.

「蘇知縣羅衫再合」의 마지막에 작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오늘까지 마을에서 소지현의 한이 풀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시도 전하고 있다. “달이 어둡고 바람은 세고 파도가 드높을 때 황천당에서는 난폭한 도둑들이 날뛰는구나. 삶이 파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니 나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보았는가?”<sup>14)</sup>

위에서, 작가는 저작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오늘까지 마을에서

13) 작품의 서두에서 왕상서의 큰딸이 최한림의 아내라는 것이 제시되고, 최한림이 해평도사로 부임했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는 기술이 있다. 즉 해평이란 곳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으려는 지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 馮夢龍, 앞의 책, 118쪽.

...”라 하여 탁주 지방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짐을 강조하였다.

서계조가 왕 상서의 딸을 아내로 맞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주해선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 죽었던 충복을 다시 살린다거나, 주봉이 큰 은혜를 입었던 이도원에게 벼슬을 내려 이에 보답하고 또한 자신을 사지에 빠뜨렸던 조정 대신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한다는 결말에서 두 작품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朱鳳傳』에서는 작가가 인물들의 선행에 대한 보답과 적대자를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각설니라 주할님과 희선은 천흐 영웅준결니라 뉘 안니 충찬흐리요 스적의 괴절  
흐기로 만만의 유전코져흐여 니 칙을 지어너여 만세유전흐난니 스품마도 본바  
다 흐기 어렵견니와 디강 부모의 효성흐고 배살을 흐거든 임군의게 충성을  
다흐야 어진 리흠을 만세에 유전하면 천추의 빛난 리흠을 뉘 안니 충찬흐리요  
(68면)

작가는 주봉 부자의 사적을 널리 알리고자 이야기를 만들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독자들이 忠孝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자신을 위기에 빠트린 정적이지만 용서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이들을 닮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 4. 朱鳳傳의 民族的 特徵과 意義

중국과 한국 작품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이야기 속에 민간신앙 요소가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 작품에서 이에 관한 기술을 보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최위자 이야기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蘇知縣羅衫再畧』에 서능이 소 지현 일행을 배에 태우기 전 ‘내일 아침 신에게 복을 빈 후 순풍을 만나면 ...’ 이란 기술이 있다. 이어 신에게 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사공들이 순풍을 기다리면서 福酒를 마신다는 기술이 있다. 또 서능이 소 지현 일행을 해치고

그의 부인을 사로잡아 온 후 잔치하면서 복을 비는 종이를 태운다는 묘사를 통해서 민간신앙 요소가 간간이 들어 있음을 본다. 그렇기는 해도 이야기 전개상 커다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소운이 삼가촌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소운은 사의를 표하는 간단한 글을 남겨두고 삼가촌을 떠났다. 도중에 列帝廟를 지나게 되었다. 마침 날이 저물어 투숙했다가 밤에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열제묘 안에 등축은 환한데 자신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讖語를 구하는 꿈이었다.<sup>15)</sup>

라 하여, 꿈을 통해 앞일을 보여주고 있다.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는 묘사는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었던, 동서고급에 널리 이용되었던 전통적인 모습이다.

정씨는 여승으로, 소운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내다가 감찰어사가 부임하자 원정을 올려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이 상봉한다. 이들은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면 가족 상봉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朱鳳傳』에서 이씨는 여승으로 살아왔으나 주봉은 어떤 삶을 영위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도 볼 수 없다. 이들 가족이 상봉하는 것은 부모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sup>16)</sup> 이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초월적인 힘이 작용함을 본다.

소운이 진정서를 바치기 위해 남경으로 향하다가 상주 열제묘에 머물던 중 꿈을 꾸며, 꿈속에서

은 숲 가운데 가을철 나뭇잎은 미친바람을 만나는구나.  
집안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이는 날을 알려고 할진대

15) 위의 책, 113면.

16) 이런 점은 『朱鳳傳』 작가의 작품화 능력에서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가족들이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에 대해 작가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만남, 그 자체를 중요시했던 작가의 생각이 위와 같이 미숙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만 셈이다.

다만 금릉의 어사가 계신 관아에 있다.<sup>17)</sup>

라는 籤語를 얻고 이를 자세히 풀이한다.<sup>18)</sup> 앞으로 남경 어사를 찾아가면 가족이 만나리라 예시해준다. 앞서 정씨가 아이를 버릴 때 ‘선부 소운의 후계자가 끊이지 않게 하늘이시여 제발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를 착한 사람의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늘을 향해 비는 묘사가 있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던 여승은 부처를 향해 아미타불을 외우기도 한다. 뒷날 귀향하면서 성황당에 안치되었던 소운의 시신을 선산에 안장해 주면서 외로운 혼백을 위로해 주는 묘사도 있다. 이처럼 작품의 곳곳에 다양하지는 않지만 민간신앙이나 불교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본다. 뒷날 도장을 세우고 소우, 주과, 소승 부부 등의 명복을 빌기도 한다.

『朱鳳傳』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천우신조가 따른다는 기술과 민간신앙의 모습을 곳곳에서 본다.<sup>19)</sup>

- ① 옥염니 부인을 붓들고 위로 왈 “너머 썰려 마음쇼셔 스름 명니 흐날의게 잇사온이 간 디로 죽사오리잇가 … ”하고 흐날임게 비려 왈 “우리 셔방님 수로 오만오철니와 육노로난 스만사철이를 슈히 단여오시게 흐오후쇼셔” … 20)
- ② 가만이 나와 경호슈을 써녹코 흐느님게 비려 왈 … “이기가 좌편의 셔머 번을 노이 남즈가 분명흐오니 부인은 닉 말슴을 드르쇼셔”(26면)
- ③ 비는이다 하날임게 비나이다 살여쥬소 살여쥬소 우리 셔방님 살여쥬소서 비는이다 비는이다(27면)

17) 馮夢龍, 앞의 책, 113면.

18) 五更에 깨어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소상히 해석했다. “첫 구 ‘땅 위는 편안하고 물 위는 흥한 데’ 라는 말은 내가 강에서 강도를 만났지만 사람이 나를 구해주어 산중에 살아있음을 뜻한다. ‘온 숲 가운데 가을철 나뭇잎은 미친바람을 만나는구나’ 라는 것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음을 나타낸다. 금릉어사가 계신 관아는 지금 의진으로 안 가고 금릉으로 가서 남경어사가 있는 아문에 고소한다면 아마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뜻 같구나.” 이에 아침에 일어나 신에게 杯琖를 했는데 과연 남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같은 곳).

19) 작품 전편을 통해서 옥염의 기도 장면을 여러 차례 본다. 그러나 이씨나 주봉이 기도하는 장면은 없다. 이런 기술에서 사대부계층보다는 민중들 사이에 민간신앙이 보편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한편으로는 작가도 양반계층이 아닌 일반백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20) 민영대 소장 한글필사본 『朱鳳傳』, 22-23면(이후 작품 인용은 면수만 표시함).

- ④ 잇씨에 용왕이 니목을 보늬여 만경창과 살갓치 늑와 주봉을 업고 드러가니 옥경 선관이 옥황상계계 급피 엇즈오디 “당나라 남문 밧기 스는 주 승상의 아달 주봉이 히평도스로 가다가 수적 장추경을 만나 즉금 물의 싸져 죽계 되여시니 급피 가서 구호읍쇼셔”하니 상져 즉시 일광디사를 불너 분분하야 “급피 주봉을 슬여주랴”하시니 디스 분부듯고 육환장을 잡고 무지계로 다리 녹코 나리와 육환장으로 주봉을 써드가 히평의 녹코 이로디 “이 쌍의셔 십칠세를 비러먹으면 자연 원슈도 잡고 영화도 불 써신이 조히 써나라”(27-28면)
- ⑤ “부인을 살여주쇼셔 히날입계 비늑이다 저발 덕분의 살여주쇼셔”(28면)
- ⑥ 부인이 옥염을 다시 도라보와 왓 “우리 심전의 못 보련이와 황천의 가 다시 보즈 보즈”하고 서로 눈물을 흘이며 이별하고 써늘 계 … (32면)
- ⑦ 인하야 비단 침아를 물음씨고 만경창과의 썬여든이 잇씨여 용왕이 거복을 보늬여 옥염을 드입씨 업고 용궁으로 곤느지라(34면)
- ⑧ 괴같이 즈심하야 춘보길이 어려워 업터지며 괴절혀져서니 의외에 영보스 칠보음 노승 팔관디스 맞춤 속가의 갓짜가 절노 올라오더니(34-35면)
- ⑨ 대스 히복홀 줄 알고 상즈을 불너 왓 “빅미와 미역을 준비히엿다가 히복히겨 든 착시리 구완하라”히더라(36-37면)
- ⑩ “히중의셔 수적 장취경을 만나 히인 삼십여 명을 다 죽이고 쏘 날을 물의 던지이 옥황상계계웁셔 살여주시디 고향도 못가고 이고디셔 비러 먹는다”(44면)
- ⑪ “천면 슈륙직을 지니여 흥비 옥염을 츠즈보라”(58면)
- ⑫ 서로 붓들고 … 하늘님을 부르지지며 잇통히니 옥황상계 용왕계 분부히시되 “ … 그러무로 옥염도 환강히계 하라” 분부히여 겨시다 잇씨에 천변 슈륙 잔츠을 옥염 싸진 강가의 비설홀 시 천히 디스와 문목지와 만조 빅관이며 흥열 잇는 스람으로 히닐님계 축슈히고 일만 군스로 빙니 밧고 여기 군졸을 삼고 부인과 주봉의 부즈는 전도단발하고 신영빅모하고 삼층단을 못고 정성으로 비러 왓 … 천자 히고 왓 “정성으로 삼일 직계하라” 하시겨날 … 히날님겨 비러 왓 … 빌기를 다 히시고 쏘다시 전교히시되 “슈륙직을 사흘을 지너라” 하시더라 … 옥황상계계웁셔 닐광 디스를 분부히시되 “급피 내려가 옥염을 살여주랴”하시니 일광 디스 육환장을 잡고 무지계로 다리를 노와 옥염을 육환장으로 복들니고 무지계 다리로 건너오겨날 … (59-63면)
- ⑬ “옥염의 흥열을 위하야 흥열문을 지여 선관의 시기되 천츄 만세라도 춘츄 제향히계 하고 전후사연을 식겨 후세에 전히리라”(67면)

①은 옥염이 주인의 무사 귀환을 빈다는 내용이다. ②는 임신한 이씨 부인이 목숨을 끊으려 하자 옥염이 정화수를 떠놓고 태아의 성별에 대해 물었는데 아들을 가졌다는 답을 얻었으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은 수적이 주봉을 죽이려하자 주인을 살려달라는 내용이다. ④는 주봉이 물에 빠지자 용왕이 이목에게 주봉을 데리고 용궁으로 데려오라 명했고, 이어 옥경의 선관이 이를 옥황상제에게 알리자 상제는 일광 대사에게 주봉을 살리라 명하고, 주봉은 해평에 안주한다. 이어 일광 대사가 17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예시해 준다. ⑤는 이씨가 물로 뛰어들려 할 때에 옥염이 부인을 살려달라고 비는 기술이다. ⑥은 부인이 옥염과 적굴에서 도망하다가 장취경이 추격하자 옥염과 이별하면서 죽어 황천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고, ⑦에서는 옥염이 물에 뛰어들자 용왕이 거북을 보내어 옥염을 용궁으로 데려간다는 묘사이다. ⑧은 이씨가 산중을 헤매다 팔관 대사를 만나는 기술이다. 부처의 도우심을 은연중 보여주고자 한 작자의 배려이다. ⑨는 출산 후 전통적인 음식인 미역국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⑩에서는 해선이 해평으로 오다가 아버지 주봉을 만나는데 이때 주봉이 옥황황제가 자신을 살려주었음을 토로한다. ⑪은 주봉이 황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아뢰자 황제가 옥염을 위해 水陸祭를 거행하도록 명한다. ⑫는 온 가족이 고향으로 가다가 옥염이 투신했던 곳에서 옥염의 재생을 위해 水陸祭를 지내는 묘사이다. 이어 옥염이 다시 살아난다는 묘사이다. 이처럼 옥염이 하늘을 향해 주인의 무사함을 빈다든지, 황제의 명으로 옥염을 찾기 위한 제사를 거행한다든지, 대사들을 모아 옥염을 위한 제를 드리는 이야기로 이끌고 있다는 점은 바로 당시 한국 민족의 민간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sup>21)</sup> ⑬은 황제가 옥염을 기리는 忠烈門을 지어 대대로 제향하게 명령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에서 옥염이 재생하며

21) 김익환이 텍스트로 했던 『주봉전』(강헌규 소장본)에는 ① 왕씨의 사촌오라버니 왕상서가 주여득의 묘에서 청룡과 황룡이 승전하는 꿈을 꾸고 주봉이 과거에 급제할 것과 이어 시련이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묘사, ② 주봉의 정적들이 그를 해평도사로 보내야 한다고 할 때 천자가 단안을 내리지 못하자 위승상이 '주봉 부부가 본래 천상에서 죄를 입고 적강했으며 이제 떠나다 17년 후에는 다시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상소하며 주봉을 보내도 좋다는 묘사, ③ 왕씨가 절에서 출산할 때 선녀가 내려와 위승상의 딸이 이 아이의 배필이 될 것임을 계시해주는 묘사, ④ 왕씨가 남편의 무덤에서 황룡과 청룡이 승전하고 바닷물이 마르는 꿈을 꾸고 이를 문복자가 풀어주는 묘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보다 더 민간신앙 요소가 강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김익환, 앞의 발표요지, 5-6면 참조).

신분 상승도 이룬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충직함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다.

이외에도 황제가 이 승상 딸과 주봉의 혼사를 주선하자, 이 승상 댁에서 길일을 가리고 혼수를 주봉의 집으로, 주봉의 집에서는 예물을 이 승상 댁으로 보낸 후 전통적인 혼례 절차에 따라 의식을 행한다. 선관이 지상에 내려왔다가 황제 일행의 거동에 급히 하늘로 올라가며 옥저와 탄금을 놓고 간다. 옥경의 물건을 줍게 되는데, 하늘의 물건이기에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암시해준다.

이처럼 『朱鳳傳』에는 우리민족 특유의 민간신앙을 비롯한 고유의 민족문화가 내재되어 있어 중국 작품들과 크게 구별된다. 그런데 이러한 民間信仰要素 등은 단순한 소재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文學의 裝置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 5. 結言

『蘇知縣羅衫再合』과 『朱鳳傳』의 원류가 『崔尉子傳』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 유사하다. 그렇지만 등장인물, 배경 설정이 다르며 사건도 주인공이 부임하다가 피습당하고 그 아내가 사로잡혔다가 도망한다든지, 도적이 양육했던 유복자가 과거에 급제한 후 복수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서는 다름을 통해 『崔尉子傳』이나 『蘇知縣羅衫再合』이 『朱鳳傳』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 작품이 한국에 유입되어 식자층 또는 역관 계층 사이에서 널리 읽혔고,<sup>22)</sup> 이들에 의해 번역 또는 개작되어 나타나 대중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호사가들에 의해 『蘇雲傳』, 『月峯記』, 『玉簫傳』 계열의 작품들로 번안, 개작, 번안·창작 소설로 발전해 오다가 『朱鳳傳』 작가에 의해 위외는 또 다른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

22) 이명구는 『李朝小說의 比較文學의 研究』(33-34면)에서, 『月峯山記』를 『蘇知縣羅衫再合』의 번안작품이라 전제한 후 그러나 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개작한 작품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 작가를 白話體 話本小說를 번역할 만한 능력을 가진 譯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가 뒤에 『月峯山記研究』(29면)에서는 문학적 소질이나 소양을 갖춘 양반계층의 인물일 것으로 보았다.

어진 것이라 본다.

풍몽룡은 『警世通言』의 서문에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詩文의 삽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였는데, 『朱鳳傳』의 작가도 자신의 저작 의도를 작품 말미에서 분명히 보여주었다.<sup>23)</sup>

일찍부터 중국 문학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한국 문학의 생성·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문 문학에서는 더 그렇다. 『太平廣記』에 실려 있던 이야기가 중국 소설은 물론 한국 소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최위자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蘇知縣羅衫再合』 같은 중국 소설로 발전하였고, 이어 한국에서는 『蘇雲傳』이나 『朱鳳傳』 같은 작품들이 나타난 것이라 본다.

그러나 『崔尉子傳』·『蘇知縣羅衫再合』과 『朱鳳傳』의 경우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배경 설정이나 등장인물의 유형과 이들이 벌이는 사건에서는 차이가 많다. 또한 작가 의도가 확연히 다르다. 이는 작가가 살던 시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지리적 배경 설정이 달라질 수밖에, 이에 따라 등장인물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 생활을 하는 것이나 임지로 가다가 수적에게 피습당한 후 부인들의 처세도 세 작품이 다르다. 백성을 향한 관리들의 태도에서도 차이가 크다. 버려진 자식의 양육 과정에서도 『朱鳳傳』에서는 혈육 관계를 중시한 것을 보는데, 가장 큰 차이라면 유교사상이나 불교신앙보다는 한국의 민간신앙 요소들을 작품 전개 과정 곳곳에 문학적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차이가 있다. 중국 작품에서는 수적을 치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朱鳳傳』의 작가는 복수를 감행한다는 이야기의 결과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보은이나 용서와 화해, 사필귀정, 인과응보 사상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두 나라 민족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던 결과라 본다.

23) 풍몽룡은 『警世通言』 서문에서, “... 於是乎村夫稚子, 里婦估兒, 以甲是乙非爲喜怒, 以前因後果爲勸懲, 以道聽途說爲學問, 而通俗演義一種, 遂足以佐經書史傳之窮...”라 하여, 經書와 史書가 아무리 독자들을 교화하려 하여도 일반인들의 지적수준으로는 그런 책들을 용이하게 대할 수 없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이 이들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朱鳳傳』의 작가도 이야기를 끝내고 이야기를 짓게 된 동기를 밝혔다.

〈參考文獻〉

- 尹河炳, 『譯註 古典小說 太平廣記』, 國學資料院, 1996.
- 李 昉, 『太平廣記』, 臺灣古新書局, 1981.
- 李時人 編校, 何滿子 審定, 『全唐五代小說』,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98.
- 林尹·高明 主編, 『中文大辭典』, 中國文化研究所, 民國57年.
- 『朱鳳傳』(민영대 소장 한글필사본).
- 馮夢龍, 『警世通言』, 中國 長春出版社, 1994.
- 
-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 金敏鎬, 『馮夢龍과 凌濛初, 그 같음과 다름』, 『中國小說論叢』 11, 韓國中國小說學會, 2000.
- 김익환, 『주봉전 연구』, 한국고소설학회 춘계발표대회, 2005. 발표요지, 1-18면.
- 민영대, 『주봉전 연구』, 『韓南語文學』 30, 韓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2003.
- 민영대, 『주봉전 연구』 - 崔尉子傳과의 影響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言語文學』 51, 韓國言語文學會, 2003, 329-359면.
- 민영대, 『朱鳳傳과 中國作品의 影響關係(1)』, 『韓南語文學』 30, 韓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2006, 39-62면.
- 민영대, 『朱鳳傳과 中國作品의 影響關係(2)』, 『韓國言語文學』 57, 韓國言語文學會, 2006, 129-160면.
- 徐大錫, 『蘇知縣羅衫再合系 翻案小說 研究』, 『東西文化』 5, 啓明大學校 東西文化研究所, 1973, 179-223면.
- 李明九, 『李朝小說의 比較文學의 研究』, 『大東文化研究』 5,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68, 1-36면.
- 全寅初, 『唐代小說研究』, 延世大學校 出版部, 2000.

## 【국문초록】

唐 皇甫씨의 「崔尉子傳」, 明 馮夢龍의 「蘇知縣羅衫再合」과 朝鮮後期 유행했던 「朱鳳傳」은 이른 시기 두 나라에서 나타났던 작품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후대로 올수록 등장인물이 많아졌고, 그들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사건 전개가 복잡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주인공이 임지로 가다가 피습 당하고 그 아내가 사로잡혔다가 도망한다든지, 도적이 양육했던 유복자가 과거에 급제한 후 복수한다는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 그렇지만 시대·지리적 배경 설정이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생활을 하는 것이나 임지로 향하다가 수적에게 피습당한 후 부인들의 처세도 세 작품이 다르다. 백성을 향한 관리들의 태도에서도 차이가 크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차이가 있다. 중국 작품에서는 수적을 치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朱鳳傳」의 작가는 복수를 감행한다는 이야기의 결과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報恩이나 容恕와 和解, 事必歸正, 因果應報 사상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두 나라 민족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던 결과라 본다.

가장 큰 차이라면 유교사상이나 불교신앙보다는 한국의 전통적 민간신앙 요소들을 작품 전개 과정 곳곳에 문학적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중국문학, 한국문학, 작가의도, 민족정서, 민간신앙, 최위자전, 소지현나삼재합, 주봉전

【Abstracts】

## The Differences in Choiwejajeon, Sojihyeonnasamjaehap and Jubongjeon

Cao, Hao

Choiwejajeon(崔尉子傳) written by Huang Fu(皇甫) in Tang Dynasty, Sojihyeonnasamjaehap(知縣羅衫再合) written by Feng Menglong(馮夢龍) in Ming Dynasty and Jubongjeon(朱鳳傳) that was famous in Late Joseon are in common as work written in the early period of each relevant countries and have similar story structures. However, as approaching to the later time, the number of characters is increased with extended roles and the story progression is more complicated in the work.

The basic structure of story is similar: The main character is attacked by a thief on the way to the appointed region. The wife escapes after being captured. The posthumous child is grown by the thief, and later, revenges the thief after qualified from the government official selection test. However, the timely and geographical background is different among the stories and the appearing characters become more various following the time of each story's release. Especially, the main character's work as the official after qualified by the government test and the wife's attitude after the main character is attacked by the thief on the way to the appointed region largely differs among these stories. Chinese stories are ending with punishing the thief. However, the writer of Ju Bong Story shows that,

while the revenge is important, forgiveness, reconciliation and ideas of 'prevailing and punitive' justice' are more highlighted. Also, the difference from showing 'what kind of life is the most humane life' shouldn't ignored. The reason for such difference can be considered as coming from the emo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s in different countrie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from that the factors of traditional folk belief of Korea are used as literary devices in various spots in the story rather than Confucius idea or Buddhism belief.

Key words : Chines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Writer's Intention, People's Emotion, Folk Belief, Choiwejajeon, Sojihyeonnasamjaehap, Jubongjeon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